

《패션의 윤리학 - 착하게 입자》 전시의 개념과 의미

황록주(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미술은 이미 수많은 장르를 내포하고 있다. 회화와 조각, 설치와, 사진, 퍼포먼스와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미술의 분류법에 더해지는 새로운 매체와 장르는 미술을 단일한 방식의 결과물로 예상해내는 일을 어렵게 한다. 순수미술의 급격한 진보와 함께 성장한 동시대 현대미술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장르간 혼성과 융합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그 이면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유효했던 장르들이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애초에 모든 미술의 종착역이었던 건축분야는 미술이 보듬기에는 큰 분야가 되었고, 가구, 의상, 공예 일반, 디자인 등 전통적인 장식미술의 영역은 순수미술의 행보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러다 보니, 미술과 역사를 담아내는 공적기관인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최근 100 여년간의 일상을 함께 해주었던 삶 속의 미술작품들을 담아내는 일에 소홀했다. 물론 해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기존 박물관의 영역별 분과는 가장 최근의 흐름까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장식미술박물관이나 디자인미술관, 건축박물관 등이 존재하여, 이들이 각 분야별로 동시대의 의미있는 활동들을 정리하고 기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시성과 통시성을 두루 아우르는 방식의 문화기록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미술관이 2008년부터 개최해온 크로스장르전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이다. 크로스장르전은 ‘순수한’ 현대미술과 함께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예술의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인접분야의 아이টে임을 슬쩍 빌려오는 어설픈 컨버전스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이슈를 전면에 드러내는 태도를 견지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화연구와 기록의 쏠림 현상이라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미술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자 하는 5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의 영역에는 오로지 순수미술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미술은 오히려 당대의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패션과 윤리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한 두 번째 크로스장르전은 ‘패션’을 대상으로 한다. 첫 전시에서 다루었던 ‘건축’ 분야에 이어 패션 장르는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술이라는 점에서, 또한 그 어떤 장르보다도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현하고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장르로 판단했다. 한편 최근

패션계는 소비 지향적인 트렌드에 따라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실천적 활동으로서의 패션’을 더욱 부각시키는 부분으로, 미적 취향의 발현을 포함하여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패션이라는, 기존과는 다른 층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른바 ‘윤리적 패션(ethical fashion)’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일컫는 윤리(倫理)는 언뜻 매우 정신적인 영역에 속해있는 것 같지만, 사실 윤리를 뜻하는 서양언어의 기원은 모두 ‘습속(習俗)’에 가깝다. 그리스어의 'ethos', 라틴어의 'mores', 독일어의 'Sitte'가 각각 관습이나 습관을 뜻한다. 달리 말하자면 각각의 문화집단들이 자연환경의 특성에 맞추어 생활하면서 체득해낸 삶의 방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윤리에 관한 학문, 즉 윤리학(ethics)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였는데, 그는 윤리학을 에티케 테오리아(ethike thioria)라고 불렀다. 이것은 에토스(ethos)에 대한 이론(theoria), 즉 관습에 관한 이론이었다.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자발적 통제양식으로 활용되는 윤리가 실은 자연과 공생하며 얻어낸 습관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관습과 습관은 모두 사회구성원들이 좋다고 판단한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삶에서 좋은 것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처음으로 던진, 윤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악덕과 방종을 무지(amathia)의 소산이라고 보았고, 절제를 앎(sophia)이나 인식(episteme)과 같은 것이라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윤리적 덕의 본질은 곧 앎이었다. 선을 향한 노력은 먼저 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션이라는 생활양식에 ‘윤리적’ 태도를 선취해내려는 ‘윤리적 패션’은 화려한 스타일과 순식간에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 소비하기에 급급했던 ‘옷입기’의 영역에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대체 어떤 부분에 무지했었던가를 묻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 속에서 패션에 대한 진정한 ‘앎’을 요청하는 것이다.

《패션의 윤리학 - 착하게 입자》 전시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로 이 ‘윤리적 패션’의 흐름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전시다. ‘윤리적 패션’이라는 말은 그동안 에코패션, 그린패션, 슬로우 패션, 친환경 패션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패션계의 여러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어로 최근 정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친환경 소재의 사용과 그 제작방식의 개발, 재활용, 공정무역,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민속의상에 관한 관심 등이 다채로운 형태로 얽혀 있는 ‘윤리적 패션’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전시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의식 있는 행동을 위한 창의적 실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물론, 근본적인 옷 입기의 윤리를 생각하게 하는 설치미술가, 사진가, 건축가와 디자이너 18 명이 출품한 90 점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윤리적 패션으로 통칭되는 다양한 활동들의 사례를 점검해보는 것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리적 패션의 카테고리별 윤곽을 짚어보고,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럽 패션계의 활동을 간략히 점검해본 후에,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활동과 작품작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양한 윤리적 패션의 실천 양상

2007 년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아나 힌드마치(Anya Hindmarch)가 만든 5 파운드짜리 천 가방은 전 세계적인 에코백(Eco bag) 바람을 몰고 왔다. "I'm not a Plastic Bag"(나는 비닐봉지가 아니다)이라는 문구가 전면 가득 씌어 있는 이 천 소재 가방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캠페인인 동시에 친환경적 실천이라는 두 가지 윤리적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였고, 몇몇 여배우들이 이 가방을 애용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윤리적 패션의 맥락 전체를 알고 있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에코백'과 같은 아이템은 또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에코백 같은 특정 아이템에 선행하는 근본적인 윤리적 실천을 위한 패션계의 활동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왔다. 무엇보다도 '친환경'을 지향하는 태도는 모든 윤리적 패션 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원단을 사용하거나, 자연소재의 원료를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염색이나 원단의 가공과정에서도 천연 염색이나 자연 재료를 활용하거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 단계를 줄이는 등의 노력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재단 과정에서 원단 손실률을 줄이는 디자인적인 실천 또한 의미있는 진전이다. 특히 2009 년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천연섬유의 해'로, 지구온난화의 요인 중 하나인 합성섬유의 환경적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지구적 차원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인 오카 마사코(Oka Masako)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에코마코(ECOMACO)는 '아름다움의 본질이란 자연'이라는 신념하에 자연 보호를 실천하는 패션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이 신격화되었던 일본 고대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의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담고 있는 그녀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환경 섬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림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옷, 세탁과 관리가 수월한 옷을 만드는 데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좀 더 창의적인 윤리적 패션의 실천은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에서 나온다. 기존 의복의 재활용은 물론, 각종 생활폐품을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완성된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의식있는 디자이너의 노력이 만들어낸 신세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체에 얼굴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주의 디자이너인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는 개인 브랜드를 갖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수집한 의류와 사물, 재활용품을 가지고 일련의 ‘아티저널 컬렉션 artisanal collection’을 선보였다. 장갑이나 양말, 망가진 축구공과 거울조각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소소한 존재와 그것의 역사를 존중하려는 사려깊은 이해를 담은 이 작품들은 파리에 있는 디자이너의 아틀리에에서 100% 수작업으로 제작된다. 영화배우로 활동하다 디자이너로 변신하여 뉴욕에서 활동하는 타라 섭코프(Tara Subkoff)는 자신의 브랜드인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Imitation of Christ)’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각종 빈티지 숍에서 구입한 중고의류를 리폼한 의상으로 뉴욕컬렉션 무대에 등장하여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다. 최근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대니 서(Danny S 대)를 동료로 맞아들여 윤리적 패션 브랜드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 출생으로 취리히에서 활동하는 형제 디자이너 마르쿠스 Marcus 와 다니엘 Daniel 프라이탁에 의해 1993년 설립된 ‘프라이탁 Freitag’은, 트럭 화물칸을 뒤덮고 있는 방수천을 재활용한 가방을 만든다. 이들 형제는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기능적이고 단단하면서도 물에 강한 가방을 갖고 싶어했는데, 집 앞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는 색색의 트럭덮개를 보면서 영감을 얻어 기발한 재활용 백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방 끈으로는 폐 자전거타이어나 파이프 라인 등을 사용한다. 처음 제품의 영감을 얻었던 그 고속도로 옆에 오래된 컨테이너 박스를 재활용한 건물을 본사로 쓰고 있는 프라이탁은 현재 40여종의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35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패션 산업의 윤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손꼽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정무역(fair trade)’이다. 공정무역은 본래 국가 상호간에 무역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을 뜻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제 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 공정무역은 커피와 초콜릿 등의 식품류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제품에 걸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패션 산업에서의 공정무역은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 불리는 트렌드 중심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부각시켰다. 패스트 패션은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빠른 소비 주기를 만들어 매번마다 소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단가를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패션으로, 이를 위해 값싼 합성섬유의 사용은 물론 생산 단가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 3세계 어린이, 부녀자의 희생적인 노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재료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노동력의 강탈에 가까운 패션산업계의 고질적인 노동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핵심적인 과제였다. 공정무역은 이들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제공하고 물리적으로 합당한

노동시간을 정해주는 등, 생산 노동의 환경과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공정무역 패션의 선두주자로는 ‘피플 트리(People Tree)’를 들 수 있다. 피플 트리의 창시자이자 대표인 사피아 미니(Sapia Minney)는 남편을 따라 이주한 일본에서 1991 년부터 ‘글로벌 빌리지’라는 NGO 단체를 운영하며 공정무역과 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것이 사업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피플 트리였다. 2001 년 영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피플 트리 UK’를 설립하고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공정무역 패션 산업을 주도해나갔다. 현재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15 개 개발도상국가에 50 개의 생산자 그룹을 관리하고 있는 피플 트리는 정당한 임금 제공은 물론, 현지 생산자들의 교육이나 학교설립에도 적극적인데,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을 넘어 자신의 공동체를 살리고 그 성과들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패션을 의사 표현의 적극적인 매체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모피 착용 금지를 위한 국제동물보호단체의 캠페인이 패션의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디자이너들의 자발적인 실천도 뒤따르고 있다. 영국의 디자이너인 스텔라 매킨니(Stella McCartney)는 가죽과 모피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고급 패션 아이템으로 여겨지는 모피 없이도 충분히 패셔너블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캐서린 햄넛(Katherine Hamnett)은 직설적인 메시지를 담은 의상으로 패션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개척했다.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중 하나인 그녀는 1984 년 마거릿 대처 총리에게서 영국 최고의 디자이너 상을 수상할 때 정장 대신 직접 만든 긴 티셔츠를 입어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 티셔츠에는 ‘58% don't want to pershing(58%의 국민은 탄도탄을 원치 않는다)’라는 슬로건이 새겨져 있어 후에 슬로건 티셔츠의 원조 혹은 대모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이후 슬로건 티셔츠 라인을 따로 가질 정도로 대중적인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캠페인 패션은 순수미술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스페인 작가인 알리시아 프라미스(Alicia Framis)의 <안티_독(Anti_Dog)>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그녀는 큰 개를 데리고 다니며 유색인종을 위협하는 스킨헤드족들에 대한 방어용 의상을 만들어 패션쇼를 개최하는 활동을 펼쳤다. ‘트와론(Twaron)’이라는 방탄재질로 제작된 이 의상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돈을 빼앗아 간다’, ‘폭력이 아름다움을 파괴한다’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전통적인 방식의 의류제조법을 보존하고 그 기술과 노하우를 이어가는 것 또한 윤리적 패션이 실천하는 분야이다. 호주 출생으로 런던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브로닌 로웬탈(Bronwyn Lowenthal)은 전통적인 핸드메이드 니트와 크로셰(crochet, 코바늘뜨기), 자수 등이 주를 이루는

브랜드 '로위(Lowie)'를 운영하고 있다. 수공업자들과 작은 규모의 생산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소규모로 생산되는 한정판(limited edition)이다. 제품에는 브랜드의 철학과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공정과정, 일을 하는 사람과 생산지를 명시한다. 멕시코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올가 아바디(Olga Abadi)는 캔디 포장지를 재활용하여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 '나우이 올린(Nahui Ollin, 아즈텍 문명이 역사적으로 구분하는 제 5 의 태양 시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방은 고대 마야인들의 직조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다. 멕시코의 공장에서 고대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제작하는 수공예 제품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윤리적 실천들은 2000 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가치있는 소비, 의식있는 소비의 문화를 확산시키며 패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윤리적 패션의 여러 맥락이 서로 교차하여 적용되면서 더욱 특징적인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활용 캠페인을 펼치는 '아름다운 가게'의 재활용품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만든 제품이 '에코 파티 메아리'라는 브랜드 활동으로 이어졌고, '오프닝 스튜디오'라는 그룹은 섬유 공장에서 처분되는 자투리 실을 모아 양말을 만들기도 했다. '쌈지농부'는 쌀포대, 현수막 등 재활용한 재료만으로 가방을 만든다.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동생인 전순옥 박사가 이끄는 수다공방이 도태가 된 '참 신나는 옷'은 노동환경의 개선과 이익금의 사회 환원을 기틀로 하는 사회적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디자이너 차원의 관심과 기업 활동뿐 아니라 섬유업계의 친환경 원단 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콩이나 대나무, 종이, 해조류를 사용하는 새로운 친환경 섬유는 물론,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드는 재생섬유나, 생분해가 가능한 합성섬유의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천연염색 공정을 현대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인쇄로 염색을 하는 DTP(Digital Textile Print)방식은 염색 과정의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급성장하고 있다. 윤리적 패션을 위한 기술과 공정과정의 개선은 우리가 물려받은 자연환경이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결국 '지속가능성'에 대한 화두가 패션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결과라 할 것이다.

유럽의 윤리적 패션 현장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패션계의 윤리적 활동은 유럽 등 윤리적 패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디자이너나 개별 패션 브랜드들 또한 전적으로 윤리적 패션에 관여하기보다는 일부 제품 라인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거나, 생산 제품 이외의 사회활동

또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윤리적 패션 활동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한국의 사정을 탓할 일은 아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공정무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온 유럽과, 그 시절을 또 하나의 제 3 세계 국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정을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일이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제조산업 분야의 공장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보자면,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미 공정무역도시로 지정된 런던의 활동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새로운 밀레니엄 사업을 추진하며 옛 영화에 연연하지 않는 젊고 새로운 영국 만들기에 돌입했다. 통칭 'yBa(young British artists, 젊은 영국 미술가들)'라 불리는 신세대 영국 작가들이 현대미술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오래도록 재개발과는 거리가 멀었던 런던 시내 곳곳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 런던 패션계 또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런던 패션계 최고의 행사라 할 수 있는 런던 패션 위크(London Fashion Week)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부분이 바로 윤리적 패션이었다.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다양한 흐름들이 2004년부터 런던 패션 위크 기간 동안 열리는 '윤리적 패션 포럼 The Ethical Fashion Forum'에서 집약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런던 패션계의 윤리적 패션에 관한 열기는 가장 먼저 공적인 입장을 갖게 된 것이었다.

패션 디자이너와 사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윤리적 패션 포럼'은 패션 산업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면서 심각한 자원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빈곤을 해결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 포럼의 후원 하에 2006년부터 윤리적 패션 전시인 '에스테티카(Estethica)'가 열렸는데, 전시의 이름이 미학(esthetic)과 윤리학(ethics)을 합한 조합어인 만큼, 공정무역과 친환경 소재, 재활용품 등을 활용한 디자이너들의 미학적인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첫 전시에 불과 13명의 디자이너들이 초대된 데 비해 2009년 2월에 열린 여섯 번째 에스테티카에는 런던은 물론 전 유럽에서 활동하는 200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불과 3년 사이에 급성장한 이 섹션의 현황은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윤리적 패션 분야가 점차 그 시장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윤리적 패션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에 힘입어 영국에서는 2008년 11월 3일, 드디어 윤리적 패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디자이너와 사업체 각 분야에 걸쳐 'Re: 패션 어워드(Fashion Award)'를 수상하기 시작했다. 윤리적 패션 포럼과 퓨테라(Futtera, 환경전문 커뮤니케이션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RE:Fashion'이라는 단체가 개최하는 이 시상식은 윤리적 패션 사업이 급성장하는 것을 자축하면서, 10년 안에 패션 산업의 환경과 사회의 기준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디자이너 캐서린 햄넷, 패션기자 힐러리 알렉산더, 옥스팜의 제인 셰퍼드슨 등 윤리적 패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사회적 빈곤 문제나 생명유지, 환경적 영향에 관심을 갖고 실천적 활동을 보여준 디자이너와 회사들에게 수여되는 이 상의 첫 수상자 중의 하나인 크리스티나 시실리노(Cristina Cisilono)는 아프리카에서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되는 액세서리 회사인 ‘메이드(Made)’를 운영하는데, 윤리적 패션은 이처럼 이름 없는 소규모 회사와 디자이너들이 중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크리스티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한 노력을 인정받아 ‘아프리카 지역 제조부문 최고 활동상(the best practice in manufacturing in Africa)’을 받았는데, 그녀의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은행계좌라는 것을 갖게 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된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변화상을 담은 수상소감이 인상적이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도 2004 년부터 ‘윤리적 패션쇼(Ethical Fashion Show)’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정의하는 윤리적 패션이란 옷이나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권리, 작업 환경의 조건, 환경 보호, 각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전통적 기술의 보존을 존중하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100 여명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이 쇼의 미션(mission)은 여섯 가지로 압축되는데, 윤리적 패션이 최첨단뉘뉘뉘뉘를 보여주면서도 환경적,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 국가의 문화를 개방하고 경제 성장을 장려하며 윤리적 패션에 대한 논의를 조성한다는 윤리적 패션 공동의 사명 이외에도 윤리적 패션이 시장에서 윤리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 논증하고, 파리를 윤리적 패션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의식있는 가치 소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엮보이는 지점이다.

파리의 ‘윤리적 패션쇼’는 윤리적 패션과 디자인 분야의 흐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의상, 디자인, 섬유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논제를 둔 윤리적 패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패션쇼와 함께 전시도 이루어진다. 또한 2005 년부터는 시상식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는 ‘윤리적 패션쇼’가 정한 ‘착한 활동 헌장(Charter of Good Conduct)’에 따라 매해 가장 윤리적인 디자이너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 헌장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류를 존중하는 것,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 현지의 기술을 보존하는 것으로, 요약하자면 “(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사람과 환경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패션분야에서 빠지지 않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도 윤리적 패션과 관련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다. 밀라노에서 매해 벌어지는 패션 박람회인 ‘화이트(WHITE)’에서는 2007 년부터 ‘클라스(C.L.A.S.S, Creativity, lifestyle and sustainable synergy)’라는 친환경 패션 단체의 쇼가 열리고 있다. 클라스는 알리스 카펠리(Alice Capelli), 마리아 비토리 사르고내티니(Maria Vittori Sargonetini) 등의 이탈리아 디자이너를 비롯해 오카 마사코와 로리 에비(Lori Ebbi) 등의 다국적 디자이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공되지 않은 섬유, 친환경 소재, 버려진 섬유를 재활용하여 친환경적인 공정과정으로 제작하는 실천하고 있다. ‘화이트’에서 ‘클라스 쇼’를 개최하는 것은 이탈리아 패션계가 더욱 아름다운 친환경적 디자인을 향한 요구와 그것의 의의에 대해 관심을

갖는 패션 산업계의 새로운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스 쇼’와 더불어 ‘화이트’에서는 ‘슬로화이트(SLOWWHITE)’라고 하는 에코 패션 디자이너들의 전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밀라노 패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시 출품작의 맥락과 의미

패션 디자인과 산업 현장에서 이토록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윤리적 패션의 흐름을 소개하는 《패션의 윤리학 - 착하게 입자》 전시는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윤리적 패션을 이루는 맥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그 활동의 중심에 서있는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이다. 영국 디자이너인 오르솔라 드 캐스트로(Orsola de Castro)와 Filippo Ricci(필리포 리치)는 1997년부터 ‘프롬 썸웨어(From Somewhere)’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디자이너들인데, 특히 오르솔라 드 캐스트로는 런던 패션 위크에서 펼쳐지는 ‘윤리적 패션포럼’의 창립 멤버이자 윤리적 패션 전시인 ‘에스테티카’의 큐레이터로도 활동하는 중심적인 디자이너이다. 그녀가 만드는 옷들은 모두 원단회사에서 버려지는 자투리원단이나 재활용품, 의류산업 현장에서 버려지는 고가의 부자재들로 만들어지는데, 런던의 히스로 국제공항에서 분실되는 수하물을 낙찰받아 그 짐 안에 있는 옷가지를 이어 만드는 <잃어버린 수하물 프로젝트(Lost Baggage Project)>는 그들의 활동을 아주 유쾌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개리 하비(Gary Harvery)는 리바이스 디자이너 출신의 영국 디자이너로, 리바이스 501 청바지나 버버리 트렌치 코트 등의 재활용품으로 오프 꾸뛰르(Haute Couture) 드레스를 제작한다. 최근에 만들어진 <신문지 드레스>는 여러 전시회에 초대되며 윤리적 패션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계 혈통으로 호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살고 있는 마크 리우(Mark Liu)는, 재단 과정에서 평균 15%, 많게는 50%까지 원단 손실이 있는 서양 복식의 제작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Zero Waste Design)’ 의상을 출품한다. 원단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 별다른 재단 과정 없이 만들어지는 동양 복식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브라질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아나 파울라 프라이타스(Ana Paula Freitas)는 알루미늄 캔뚜껑 손잡이를 재활용하여 공정부역을 통해 만든 가방을 선보인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패션디자이너이자 설치미술가인 모바나 첸(Movana Chen)은 문서쇄단기에서 나온 파지를 손으로 엮어 만든 작품을 출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본격적인 윤리적 패션 활동을 하는 작가들도 참여한다. 윤진선, 홍선영, 채수경은 ‘리블랭크(Re_blank)’라는 브랜드를 통해 재활용 의류를 리폼해 만든 의상을 출품한다. 옥수수전분과 췌기풀, 한지 등 친환경 소재로 웨딩드레스를 제작하는 이경재의 작품과,

여성환경연합이 설립한 페어트레이드코리아의 유기농 공정무역 의류 브랜드인 ‘그루(g:ru)’의 로카타 종이 원단의 의상 또한 귀중한 작품들이다.

전시의 두 번째 맥락은 윤리적 패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실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으로 이어진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가 공급하는 유기농 공정무역 원단으로 제작된 컬렉션을 출품한 패션디자이너 홍승완의 작품이나, 다양한 재활용 소재와 민속적 모티프를 사용하여 만든 구두디자이너 이겸비의 작품은 디자이너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또한 신체가 머무는 공간에 대한 해석이 담겨있는 작품을 건축가 신형철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보여주는 패션디자이너 신혜리의 민속적 모티프를 활용한 작품, 먹는 행위와 옷을 입는 행위의 상징적 결합을 통해 옷을 입고 소비하는 일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패션디자이너 예란지와 영상작가 하시시박의 공동작업도 눈여겨볼 작품들이다. 체형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동지 같은 옷을 만들어낸 디자이너 이정혜의 작품이나, 패션제품을 생산하는 노동 현장의 부조리한 상황들을 의상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패션디자이너 전경빈의 작품 또한 패션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을 하게 한다.

《패션의 윤리학 - 착하게 입자》가 제시하는 마지막 대상은 바로 옷입기의 윤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질문들에 관한 작품이다. 건축가 윤미진의 <피비우스 드레스>는 안과 밖의 구분이나 단절이 없고, 정형화된 형태마저 없는 피비우스 띠로 만든 드레스를 통해 몸을 감싸는 몸에 대한 많은 생각을 이끌어낸다. 패션디자이너 아네트 코우웬버그(Annet Cowenberg)는 몸을 보호하는 얇고 부드러운 방패 역할을 하는 옷의 상징성을 문화적 이질감이나 사회적 약자로서의 무력감을 극복해내는 작품으로 형상화한다. 재활용 인형옷을 만들어 입힌 대규모 설치 작업을 통해 버려진 모든 것을 쓸모 있게 하는 창의적 실천을 보여주는 윤정원 작가의 작품과 완벽한 몸매와 명품의 패션보다 소중한 우리의 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바네사 비크로프트(Vanessa Beecroft)의 작품들은 옷을 입는다는 일과 관련된 수많은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유도해내는 독해를 요구하고 있다.

남아있는 과제

미술과 인접해 있는 시각예술 장르를 소개하고 현장 중심적인 논점들을 다루고자 하는 경기도미술관의 ‘크로스장르전’은 그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각각의 장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소개할 인력의 부재이다. 독립된 분과별 활동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맥락을 잡아나가는 준비 과정 속에서 오류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었다. 미술 인접 장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 구조의 한 부분이
이들을 위해 할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패션 분야를 다룬 이번 전시는 그동안 세계 여러 미술관에서 개최된 패션 전시가
‘모드(Mode, 유행)’ 중심이었던 데 반해, ‘윤리적 활동으로서의 패션’이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어 주제의 전달이라는 일차적인 목표에는 다다랐지만 이들 작품에게 공통적인 시각적 유형이나
양식을 분류하고 그것의 의미까지를 길어 올리는 지점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준비기간과 예산 등 전반적인 전시기획의 제반 여건만을 탓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스스로 딛고
넘어야 할 지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나은 기획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윤리적 패션이 추구하는 공동의 선(善)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유효한 것인가, 누구라도 실천해야 하는 가치인가 하는 일반화의 문제, 또한 그것이 실천적
과제로 남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전시는 구체적인 답을 내기가 어렵다. 행동과 실천의
우선순위를 강제하는 것은 진정한 윤리가 아닐 수 있으며, 특히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면 단번에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시가
개별적으로 활동해왔던 실천가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외로움을 덜어낼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개개인의 옷장 안에, ‘윤리적’인 옷들이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걸려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전시가 소박하게 목표로 두었던 지점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 이상이 된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